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 양상과 의의

서혜은*

〈차 례〉

1. 서론
2.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 배경
3.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 양상
4.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의 의의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Allen이 1892, 1895, 1896년에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의 수록 양상과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The Korean Repository*는 1892년에 창간되어 중단되었다가 1895년부터 1899년까지 간행되었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는 전설과 민담으로 양분되며 총 열여덟 편으로 집계된다. 1884년 조선에 온 Allen은 고종을 비롯한 명성황후 민씨 일가와 친분을 쌓으면서 정치적 공간인 서울에서의 체험을 기록하고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했기에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를 수록할 수 있었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는 전설과 민담으로 양분된다. 전설은 대부분이 수도 서울의 명소담과 명물담에 해당하며 경복궁과 경희궁에 얽힌 이야기, 보은단동과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 정릉과 관왕묘의 조성담, 원각사 석탑의 전래담과 보신각종의 구조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담은 조선인의 저력과 민족성에 대한 칭송담으로 태조와 영조의 선치민정담, 조선 학자의 난제해결담, 민중의 지혜담·무용담·예언담으로 분류할 수 있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수록한 설화에는 19세기 말 조선의 정치와 외교 담론이 투영되어 있으며 조선인의 이타심과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제시되어 있고 서구인의 조선 설화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전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알렌, 코리안 리포지터리, 서울, 19세기, 민족성, 서구인

1. 서론

Horace Newton Allen(1858~1932)은 한국에서 간행된 최초의 잡지로 평가받고 있는 *The Korean Repository*에 여러 편의 기사를 수록했다. *The Korean Repository*는 1892년에 창간되어 중단되었다가 1895년부터 1899년까지 간행되었다. Allen은 1892년 창간호에서부터 설화를 수록하기 시작하여 1896년까지 여러 편의 기사와 설화를 수록했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주로 수록한 기사의 내용은 서울의 특정 장소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장소에 관련된 역사와 전설, 민담 그리고 한국의 풍속과 문화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의 특정 장소를 비롯하여 인물 및 사물과 관련된 전설과 민담이다.

*The Korean Repository*에는 Allen 외에도 Samuel A. Moffett(1864~1939), Geo. Heber Jones(1867~1919), Douglas Follwell, Roderick Random과 필명으로 보이는 X, Y, Z 등과 같은 인물들도 설화를 수록했다. 그러나 Follwell은 여섯 편, X는 다섯 편, Random은 두 편, Moffett·Jones·Y·Z는 한 편씩만 수록했지만 Allen은 열여덟 편의 설화를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The Korean Repository*에 가장 많은 수의 설화를 수록한 인물은 Allen이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는 크게 전설과 민담으로 양분되며 서울과 관련된 전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측면은 Follwell이 수록한 여섯 편의 설화는 모두 평양의

전설이며 Random은 대구 달성의 전설과 진주 논개의 전설을 수록한 측면과 변별된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들은 일부만 소개되었으며 기행 기사 또는 민간신앙을 수록한 기사와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¹⁾ 그러나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열여덟 편의 설화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²⁾ 따라서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열여덟 편의 설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는 있다.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민속,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글들도 여러 편 수록했다. 그리고 그가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전설들 가운데는 특정 장소와 사물을 소개하는 기사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선행 연구에서 Allen이 수록한 전설을 기행 기사로 논의된 것 또한 전설이 특정 장소 및 사물을 소개하는 기사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 가운데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각편들도 존재하기에 연구의 의의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의 양상과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예비작업으로 먼저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를 수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그가 *The*

1) 조희웅, 「韓國說話學史起稿-西歐語 資料(第 I·II 期)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106쪽; 유영렬·윤정란, 「19세기 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4, 231~238쪽;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32쪽; 권선경, 「The Korean Repository에 나타난 민간신앙 관련 기사의 양상과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7, 순천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8, 184~189쪽.

2) X, Y, Z라는 필명을 쓰는 각 저자들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김성철, 「“The Korean Repository”, 설화집으로서의 가능성-익명의 저자가 채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배달말』 75, 배달말학회, 2024, 261~309쪽).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의 양상과 의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 배경

1) 서울 내 역사 및 정치 공간의 체험과 그 기록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열여덟 편의 설화 가운데 열 편이 서울과 관련되어 있다. Allen은 1892, 1895, 1896년에 서울의 특정 장소와 사물을 소개하는 열아홉 편의 기사를 수록했다. Allen이 수록한 기사와 설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1892, 1895, 1896년 수록 서울 관련 기사와 설화

연번	제목		월	권(연도)
1	1) <A True Story of Korea>	설화	12월	1권(1892)
	2) Legends of Chong Dong and Vicinity			
2	① <Chong Dong>	설화	3월	2권(1895)
3	② <The Mulberry Palace>	설화		
4	③ <Kong Dang Kohl>	설화		
	3) Place of Interest in Seoul with History and Legend			
5	① <The Marble Pagoda: or Stone Pagoda>	기사/설화 포함	4월	
6	② <The Fire God's Track Over Seoul>	설화		
7	③ <The Big Bell>	기사/설화 포함		
	4) Place of Interest in Seoul-temples			
8	① <Royal Ancestral Tablet Temples-Yung Hei Chun and Chong Myo>	기사	5월	
9	② <The Confusian Temple>			
10	③ <Kyung Moh Kung>			
11	④ <The Temple of Heaven>			
12	⑤ <Youk Sang Koong>			

13	⑥	〈The God of War and His Temples at Seoul〉	기사/설화 포함		
	5)	Place of Interest in Seoul-palace			
14	①	〈Kyung Poh Kung〉	기사/설화 포함		
15	②	〈Tong Kwan Tah Kwall〉	기사	6월	
16	③	〈Pynl Kung〉			
17	④	〈Nam Pynl Kung〉			
18	⑤	〈Moh Hah Kwan〉			
19	⑥	〈In the Suburbs〉			
20	6)	〈A Fortune-Teller's Fate〉	설화	7월	3권(1896)

【표1】에서도 확인되듯이 Allen은 1892년 12월에 간행된 1권에서 〈A True Story of Korea〉를 수록하기 시작하여 1895년 3월과 4월에 간행된 2권에서는 “Legends of Chong Dong and Vicinity”와 “Place of Interest in Seoul with History and Legend”라는 제목으로 총 여섯 편의 설화를 수록했는데 제목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모두 전설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그리고 “Place of Interest in Seoul-temples”와 “Place of Interest in Seoul-palace”라는 제목으로 각각 서울에 있는 사당들과 궁궐들을 소개하면서 〈The God of War and His Temples at Seoul〉, 〈Kyung Poh Kung〉에서는 각각 관왕묘인 남묘 및 동묘와 경복궁과 관련된 설화를 수록했다.

이처럼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서울과 관련된 설화들은 그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해당 장소를 직접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를 수록하기 전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표1】에 제시된 명소들을 방문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Allen이 쓴 일기에는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기사와 설화에서 확인되는 보신각종, 경복궁, 창덕궁, 남대문 등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다음 인용문은 1885년 2월에 그가 쓴 일기의 일부이다.

① 나는 아내 파니와 함께 서울 종로 거리로 산책길에 나섰다. 종로의 보신각종(Curfew Bell)을 관람했다. 우리가 종로거리를 산책할 때 6명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辟除 소리’를 내어 잡인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확보했다. 오늘도 나의 조선어 선생은 설 명절 酒宴에 빠져 출근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는 민영익 저택으로 가서 죽동궁 사진을 촬영했다. 그 다음에는 종로거리와 남대문을 비롯하여 기타 서울의 풍경을 촬영했다.³⁾

② 어제 파니와 함께 나는 夏宮을 관람했다. 내가 민영익에게 夏宮으로 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민영익은 내 뜻을 국왕에게 上奏, 즉 국왕이 우리들의 夏宮 소풍을 允許, 宮中호위병을 파견, 宮門을 열게 했다.⁴⁾

그리고 Allen은 고종 및 민영익과 친분이 두터웠기에 서울에 머무는 동안 고종이 창덕궁을 떠나 새로 단장한 경복궁으로 가는 이어 행렬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③ 우리는 閔泳翊의 특별한 배려로 국왕 移御行列을 구경할 수 있었다. 종로 普信閣 근처의 조그만 2층집 방 하나를 차지해서 국왕 幸行을 구경할 수 있었다. 移御行列을 구경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장안 백성들이 종로 네거리로 모이기 시작 인산인해를 이루었다.⁵⁾

이뿐만 아니라 Allen이 1889년에 출간한 *Korean Tales*에는 ‘SEOUL-THE CAPITAL.’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 Allen은 서울의 지리적 환경 및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국왕이 거주하는 조선의 수도이자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명확하게 제시했다.⁶⁾ 특히 궁궐 및

3) H. N. Allen,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7, 60쪽.

4) H. N. Allen(2017), 위의 책, 62쪽.

5) H. N. Allen(2017), 위의 책, 68쪽.

6) While some of the provincial capitals are said to contain more people and

궁중 생활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상세하다.⁷⁾

그리고 【표1】에 제시된 〈A True Story of Korea〉, 〈Chong Dong〉은 정릉, 〈The Mulberry Palace〉는 경희궁, 〈Kong Dang Kohl〉은 보은단동, 〈The Marble Pagoda: or Stone Pagoda〉는 원각사의 석탑, 〈The Fire God's Track Over Seoul〉(Kyung Poh Kung)은 경복궁, 〈The Big Bell〉은 보신각종, 〈The God of War and His Temples at Seoul〉은 관왕묘인 남묘 및 동묘와 관련된 이야기이다.⁸⁾ Allen이 서울에서 머물던 주거지는 정동으로 현재 국립정동극장 및 덕수궁 중명전의 자리로 알려져 있다.⁹⁾ *The Korean Repository*에서 설화의 대상으로 설정된 정릉, 경희궁, 보은단동, 경복궁, 보신각종, 남묘 및 동묘는 모두 Allen의 거주지와 가까운 중구 및 종로에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 장소 및 사물을 직접 관찰 및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설화를 접했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o be more celebrated for certain reasons, Seoul is the home of the King the Mecca of his faithful subjects. A description of this city may, therefore, answer for all. The capital is a city of some 300,000 inhabitants, half of whom, perhaps, live in the extensive suburbs without the walls. It lies in a basin of granite sand,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and their projecting ridges, over which climbs the high, thick, encircling wall of masonry; pierced at convenient points by massive, pagoda-rooted gates, amply strong enough for defense against the weapons of war in use at the time of building this great relic of seclusion(H. N. Allen, 'SEOUL-THE CAPITAL', *Korean Tales-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The Knickerbocker press, 1889, pp.15~16).

7) Foreigners who have been granted an audience with the King are always pleased with his affability and brightness. He is quick of perception and very progressive. By having foreign newspapers translated to him he keeps fully abreast of the times. He is kind-hearted to a fault, and much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his people(ibid., p.27).

8) 〈The Fire God's Track Over Seoul〉에 제시된 내용이 1885년에 쓴 Allen의 일기에서 언급되어 있다(H. N. Allen(2017), 앞의 책, 66쪽).

9) 김용석, 『100년 전 선교사의 서울살이』, 서울역사박물관, 2022, 82쪽.

*The Korean Repository*에는 보신각종, 남묘 및 동묘, 경복궁을 직접 관찰한 기록이 있는데, Allen이 쓴 일기에서 여름 정자로 명명했던 경회루에 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¹⁰⁾

Allen이 설화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은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공간이기도 하다. 그는 갑신정변에서 부상당한 민영익을 치료해 준 이후로 고종 일가와 친분을 형성했다. 그러므로 경복궁과 경희궁을 비롯하여 국왕이 거주했던 궁궐 및 외교 사절단이 머무는 공간이었던 남별궁과 모화관을 비롯한 궁실과 여러 사당과 같은 정치적 공간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특혜를 누렸다. 그리고 자신이 관찰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10) ① The bell is, roughly, 8 feet in diameter at the base. 10 feet in height exclusive of the dragon casting at the top and the heavy hangings. The house which holds it is about 16 by 24 feet ground measure and 12 feet from the ground to the eaves. It is inclosed with paling, has a file roof and some ornamentation in colors(〈The Big Bel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The Trilingual Press, April, 1895, p.133).

② The three large temples are much alike, having the same frescoes, and arrangement of buildings. At Poong Myo, the image of the god sits on a canopied throne, guarded on either side by two fierce looking statues of warriors. His face is dark red and he has the long forked beard ascribed to him.(...)In the outer room in front of the god, stand incense burners, bronze lanterns and the great sword of Kwan Won, which taxes a strong man to lift(...)(〈The God of War and His Temples at Seou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May, p.187).

③ This palace is an enclosure of about 100 acres with another enclosure at the back which runs far up the sides of the North Mountain at the foot of which the palace grounds are laid out. This outside enclosure is used for holding the competitive examinations. It is hilly and broken, while the palace enclosure proper is quite level.(...)There are a great many buildings in the palace enclosure, occupied by the regular attendants and giving residence to some 3000 individuals. The inclosing walls are thick and high and the gates are good specimens of Korean masonry(〈Kyung Poh Kung〉,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May, pp.210~211).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체험을 토대로 한 저술 활동으로 인해 Allen은 *Korean Repository*에 서울의 여러 명소와 관련된 전설을 수록할 수 있었다.

2)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의 우수성 인지

Allen은 1895년 9월부터는 기사가 포함되지 않은 민담을 독립된 형태로 수록하기 시작했다. 1896년 4월에는 무당과 관련된 기사를 수록했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태조와 관련된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1896년 8월부터 1897년 1월까지의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기사를 수록했다. Allen이 1895년 9월부터 1897년 1월까지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와 기사를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 1895년 9월~1897년 1월 수록 설화와 기사

연번	제목		월	권(연도)
1	〈The Wise Fool or The Korean rip van winkle〉	설화	9월	2권(1895)
	Folk Lore			
2	〈A Reward to Filial Piety〉	설화	12월	
3	〈The Skilled Swordsman〉			
4	〈Some Korean Customs- The Mootang〉	기사/설화	4월	3권(1896)
5	〈The Reward of Honesty〉	설화	7월	
6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7	〈The Origin of the Pumice Stone〉			
8	〈Tah Cho and The Rat〉			
9	〈Bicycle Experiences in Korea〉	기사	8월	
10	〈Some Korean Customs-Dancing Girls〉		10월	
11	〈An Old Book on Korea〉		1월	4권(1897)

Allen이 1895년 9월부터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1~8에 해당하는 여덟 편의 설화는 모두 조선인들의 우수한 면모를 드러내는 서사로 전개된다. 〈A Reward to Filial Piety〉, 〈The Reward of Honesty〉에

는 영조의, 〈Tah Cho and The Rat〉에는 태조 이성계가 선정을 베푸는 모습과 더불어 태조의 우수한 능력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에는 중국 황제가 탄복한 두 조선 학자의 뛰어난 문필 능력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The Skilled Swordsman〉에는 무명의 검객이 등장하여 이여송을 제압하고 〈The Wise Fool or The Korean rip van winkle〉에는 지배층보다 더 뛰어난 지략을 지닌 바보의 이야기로 전개되며 〈Some Korean Customs-The Mootang〉의 후반부에는 여우로도 변신할 수 있는 무당이 등장하여 태조 이성계를 돕는다. Allen이 이와 같은 내용의 설화를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llen은 1885년에 쓴 일기에서 조선의 기녀들을 직접 병원에서 교육하고 난 뒤 간호사가 된 기녀들의 총명함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¹¹⁾ 그리고 *Things Korean*에서는 조선인들을 영리하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민족으로 어린아이들조차 외국 아이들보다 예의 바르다고 평가했다.¹²⁾ 그리고 조선인들이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훨씬 지혜로운 문화를 가진 민족이라 극찬하기도 했다.¹³⁾ 또한 조선은 비록 국토는 좁지만 유구한 문화를 지닌

11) “오늘 우리는 妓女(Dancing Girl)에 속한 젊은 少女 5명을 우리 병원에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들 소녀들에게 女子醫學生의 이름을 부쳐주면서 순결한 생활과 의학습을 익히도록 하여, 간호원이 된 것이다. 이들 妓女들은 아주 총명했고 알랜 부인도 이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H. N. Allen(2017), 앞의 책, 94쪽).”

Allen은 영리한 기녀들이 위안 스카이에 의해 팔려간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H. N. Allen(2017), 위의 책, 110쪽).

12) Children.-The Korean children are like the young of other lands, except that perhaps they are more generally well behaved(Horace N. Allen, M.D., *Things Korean-A Collection of Sketches and Anecdotes Missionary and Diplomatic*, Fleming H. Revell Company, 1908, p.127).

13) In this respect these people fare better than do their neighbours, for the Japanese house are notoriously cold, and a fire pot for warming the fingers is the only native system of heating, while the Chinese never are warm in

일본의 스승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일본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조선에서 배운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¹⁴⁾ 이처럼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를 수록하기 전부터 일본 및 중국보다 더욱 우수한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임금, 학자, 검객, 무당 등 다양한 신분의 조선인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의 설화를 수록할 수 있었다.

이러한 Allen의 조선인과 그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은 1888년 워싱턴에 조선 공사관을 설치하고 조선을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의 참여를 권유 및 주선하고 직접 동참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¹⁵⁾ 특히 1897년 1월에 간행된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표2】의 11번 기사에 해당하는 〈An Old Book on Korea〉에서는 Allen이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 참여 당시 아일랜드 의상 디자이너의 요청으로 그가 소유한 한국에 관한 책에 나와 있는 모자를 구해달라고 하여 구해 주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Allen은 그 대가로 아일랜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한국에 관한 고서를 입수했는데, Allen은 그 책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조

the raw cold of winter(ibid., p.67).

14) Korea is a small and insignificant land but she represents an ancient civilization which made her the schoolmaster of Japan(ibid., p.52).

Origin of Satsuma Ware.- The Japanese learned the art of making fine pottery from the Koreans, who were also their teachers in many other useful branches(ibid., p.210).

15) In 1888 I escorted a Korean minister, and his suite of twelve, to Washington, and established them - the first Korean legation to be established out of Asia. I was in January that this unique party burst upon our capital, clad in delicately tinted silk gowns, and wearing their hats in the house. And such hats! They were made glossy black horsehair, silk and bamboo, with the crowns, shaped like truncated cones, rising from rims six inches across. Social functions were in full swing and we went to the more important ones(ibid., p.169).

선인들이 예의와 품위가 있는 수준 높은 교양을 지닌 민족이라고 서술한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했다.¹⁶⁾

*The Korean Repository*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서구에 한국을 알릴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Allen이 중국인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면모까지 제시된 설화를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 양상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열여덟 편의 설화는 다음과 같다.

【표3】 Allen의 *The Korean Repository* 수록 설화

연번	제목	권(월)	연도
①	〈한국의 진실된 이야기〉	1권(12월)	1892
“정동과 그 주변의 전설”			
②	〈정동〉	2권(3월)	1895
③	〈뽕나무 공궐〉		
④	〈공단궐〉		

16) H. N. Allen, 〈An Old Book on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 IV, January, 1897, pp.14~17.

Allen이 이 기사에서 확보한 고서는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with an Appendix, Containing Charts, and Various Hydrographical and Scientific Notices*로 보인다. 이 책의 17 쪽에는 갖과 전립을 쓴 한국인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Captain Basil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with an Appendix, Containing Charts, and Various Hydrographical and Scientific Notices*, London: John Murray, Albemarle-Street, 1818, p.17).

“역사와 전설이 있는 서울의 명소”			
⑤	〈대리석 탑 또는 석탑〉	2권(4월)	1896
⑥	〈서울 전반에 나타난 화신의 흔적〉		
⑦	〈큰 종〉		
“서울의 명소-사찰”			
⑧	〈서울에 있는 전쟁의 신과 그의 사당〉	2권(5월)	
“서울의 명소-궁궐”			
⑨	〈경복궁〉	2권(6월)	
⑩	〈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	2권(9월)	
“민담”			
⑪	〈효행에 대한 보상〉	2권(12월)	
⑫	〈숙련된 검객〉		
⑬	〈한국의 관습들-무당〉	3권(7월)	
⑭	〈점쟁이의 운명〉		
⑮	〈정직에 대한 보상〉		
⑯	〈펜은 칼보다 강하다〉		
⑰	〈부석의 기원〉		
⑱	〈태조와 쥐〉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는 크게 서울 지역과 관련된 전설과 민담으로 양분된다. 【표3】의 ①~⑨, ⑭는 서울에 있는 명소 및 명물에 대한 전설이며, ⑩~⑬, ⑮~⑱은 조선인의 우수한 면모를 드러낸 민담으로 보인다. ⑤⑦⑧⑨는 기사 안에 전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를 수록한 양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수도 서울의 명소담과 명물담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서울의 특정 장소와 사물에 얽힌 총 열 편의 이야기를 수록했다. 열 편의 설화 가운데는 경희궁 및 경복궁과 관련된 설화가 세 편, 정릉과 관련된 설화가 두 편 수록되어 있으며, 관왕

묘인 남묘와 동묘, 현재 미동으로 알려진 보은단동, 아차 고개와 원각사의 탑과 보신각종에 대한 설화가 각각 한 편씩 수록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장소와 사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경복궁과 경희궁에 얽힌 이야기

【표1】에 제시한 바와 같이 Allen은 1895년에 간행된 *The Korean Repository* 6월호에서 “Place of Interest in Seoul-palace”라는 제목으로 궁궐에 대한 여섯 편의 기사를 수록했다. 이 여섯 편의 기사들 가운데 설화가 포함된 기사는 【표3】의 ⑨〈경복궁〉이다. ⑨〈경복궁〉의 경우 전체 기사는 경복궁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시작하여 홍선대원군이 승려 만인을 만나서 들은 예언과 조언 그리고 경복궁 전반에 대한 묘사로 구성되어 있다. 경복궁의 역사는 상당히 간략하게 제시된 반면 근정전을 중심으로 한 경희루에 대한 묘사는 상당히 상세하다. ⑨〈경복궁〉에서 확인되는 설화는 홍선대원군이 승려 만인을 만나 들은 세 가지 예언에 대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 홍선대원군은 승려 만인에게 고종이 어렸을 때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적중했으며 경복궁의 재건과 대원군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만 명을 살해할 것을 조언했다는 것이다. 대원군은 만민의 조언을 받아들여 경복궁의 재건을 시작했으며 경복궁 재건 당시 만민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감독으로 참여하게 하여 경복궁을 완공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홍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형성된 것으로 그의 경복궁 재건의 정당성을 드러낸 이야기로 보인다. ⑨〈경복궁〉의 서두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현재의 경복궁은 현재의 서울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다. 경복궁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지어졌다. 경복궁은 300년 전 일본이 침략했을 당시 파괴되었지만 순조에 의해 다시 지어졌고 중국인들에 의해 또다시 불탔다. 경복궁은 거의 200

년 정도 폐허로 있다가 현재의 군주의 아버지에게 의해 다시 지어졌고 그는 아들을 대신하여 통치했다. 경복궁은 그 이전보다 지금 더욱 아름다워졌다.¹⁷⁾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경복궁에 얽힌 이야기는 【표3】의 ⑥〈서울 전반에 나타난 화신의 흔적〉에서도 확인된다. 이 이야기는 관악산에 화신이 있어서 남대문과 경복궁에 화재가 잦았다는 것과 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경복궁의 문 앞 양쪽에 남쪽을 향해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해태의 석상을 세웠고 연못을 조성하여 화신이 남대문을 지날 때 경로를 변경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역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야기로 보인다. 이야기의 첫 부분에는 경복궁이 세 번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전과 당시 그리고 재건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⑥〈서울 전반에 나타난 화신의 흔적〉의 서두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악산의 화신(화산?)의 해로운 영향으로 성곽의 남대문뿐만 아니라 북악산 아래의 궁궐도 세 번이나 거의 전소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재난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두 중요한 장소는 화신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지나가는 정확한 경로에 있었기 때문이다.¹⁸⁾

17) The palace at present occupied-Kyung Poh Kung-was the first to be built on the present site of Seoul. It was built by Tai Cho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 Dynasty. It was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300 years ago and was rebuilt by Sun Cho, to be again burned by the Chinese. After this it remained as it was for nearly 200 years to be rebuilt during the reign of the present monarch, by his father, who was then acting as Regent during his son's minority. It is more beautiful now than before(Kyung Poh Kung, PLACES OF INTEREST IN SEOUL-PALACES.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May, 1895, p.209).

18) Owing to the baneful influence of the fire-god(volcano?) in the Kuan Hak San South Gate of the city as well as the Palace under the North mountains

Allen은 경희궁에 얽힌 이야기도 수록했는데, 【표3】의 ③〈뽕나무 궁궐〉이 그러하다. *The Korean Repository*에서는 경희궁의 부근에 양잠이 장려될 정도로 뽕나무가 많았기에 조선에 머물던 당시에 많은 외국인들은 경희궁을 뽕나무 궁궐로 불렀다고 언급되어 있다.¹⁹⁾ ③〈뽕나무 궁궐〉에는 경희궁에 얽힌 세 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태조가 무학대사의 조언 및 예언과 땅에서 솟아오른 돌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무시하고 정도전의 견해에 따라 경희궁의 위치를 정했고 그로 인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내용이다. 정도전은 북악산 아래에 궁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무학의 조언과 돌비석에 새겨진 내용은 십 리를 더 가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학은 만약 십 리를 더 가서 궁궐을 짓지 않는다면 이백 년 이내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로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무학의 예언이 적중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는 무학의 조언과 돌비석에 새겨진 내용을 무시하고 경희궁의 자리를 결정한 태조와 정도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문종이 경희궁을 지었고 한석봉이 현판 ‘홍화문’을 썼으며 글자에서 빛이 났기에 문종이 이 거리를 ‘야주개’로 명명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원래 문종이 거주하던 궁궐에서 많은 귀신들이 등장하여 신하들의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소문이 퍼져 신하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기에 경희궁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석봉은 현판에 글자를 쓰기 전부터 몸을 정갈하게 하고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홍화문을 쓰고

have suffered almost complete destruction three different times by fire. Such a calamity was to be expected, for these important places lay right in the line of the fire god's path from one station to the other(THE FIRE GOD'S TRACK OVER SEOU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April, 1895, p.131).

19) The “Mulberry Palace” is the 慶熙宮 near the West Gate and has received this name from foreigners because its spacious inclosure has been planted with mulberry tree. in the laudable attempt to encourage sericulture among the people. ED(*The Korean Repository*, vol. II, March, 1895, p.110).

난 후에는 팔이 많이 부어서 더 이상 다른 글자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청나라가 침략하여 ‘홍화문’의 ‘화’자를 쓴 이후에는 더 이상 빛이 나지 않게 되었고 그 구멍의 흔적도 남아 있다는 내용도 수록되어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괄이 난을 일으킨 후에 삼일동안 경희궁에 머물렀다는 내용이다. 태어날 때부터 숫자 세이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던 이괄은 한 획을 더 추가하면 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손바닥에 상처를 낸 후 봉대로 손바닥을 감싼 채로 벽을 쳤다. 그 후에 봉대를 풀었을 때 손바닥에 三日王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이괄은 심사숙고한 후에 평안도로 가서 젊은이들을 모아 훈련을 시켰고 무기를 모아 서울로 가서 난을 일으켰다.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으며 이괄은 왕이라 자처하고 경희궁에 머물면서 삼일동안 조선을 통치했지만 결국 이괄은 처형당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2) 보은단동과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서 보은단동과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을 수록했다. 【표3】의 ④〈공단골〉은 보은단동, ⑭〈점쟁이의 운명〉은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이다. ④〈공단골〉에서 보은단동이라는 지명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다. 제목에서 사용된 ‘공단골’이라는 명칭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운단골’과 동일한 대상이다. 본문에서는 ‘고운단골’과 ‘공단골’의 두 가지 명칭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두 지명이 ‘오래 전의 은혜로운 비단’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두 지명은 모두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의미의 ‘미동’으로도 불린다는 구절이 본문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다. ‘보은단동’이라는 지명은 ‘보은단골’ 또는 ‘보은담골’로도 명명되었으며 ‘고운담골, 곤담골, 곤당골’로도 명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고운담골’을 한자식으로 ‘미장동’으로 불렀고 이를 줄여

‘미동’으로 명명했다고 한다.²⁰⁾

④〈공단골〉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통문관지』, 『국당배어』, 『성호사설』, 『중한시사』, 『기문총화』, 『삼교만록』, 『임하필기』 등에서 확인되는 중국 여인의 홍순언에 대한 보은담과 동일하다.²¹⁾ ④〈공단골〉에서는 홍순언이라는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홍’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홍순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공단골〉에서는 ‘홍’이라는 인물이 인삼 상인으로 등장하는데 경제적인 궁핍으로 죽은 모친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여인을 위해 의남매를 맺은 후 자신이 가진 돈 모두를 주고 조선으로 돌아온다. 그 이후에 여인은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남성과 혼인한 후 ‘홍’의 은혜를 갚기 위해 중국 황제에게 요청하여 ‘홍’을 찾아 중국으로 오게 한 후에 ‘오랜 은혜의 비단’이라는 글자를 백필이나 되는 비단에 일일이 새겨서 준다. 또한 여인은 조선의 임금에게 요청하여 ‘홍’을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했고 그 이후에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할 때 ‘홍’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④〈공단골〉의 내용은 〈홍순언 이야기〉로 알려진 서사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여러 문헌에 수록된 〈홍순언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홍’이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로 조선에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빌린 친구들에게는 폭행을 당하기도 하며 그들의 요청으로 결국 서울을 떠나 남쪽 지방으로 가게 된 이후에는 공연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거사 또는 사당과 같은 천민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다음의 내용은 ④〈공단골〉에서만 확인되는 변별되는 지점으로 보인다.

20) 『서울지명사전』, <https://history.seoul.go.kr>, 접속일자: 2025.10.20.

21) 정명기, 「〈홍순언 이야기〉의 갈래와 그 의미」, 『동방학지』 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301~341쪽; 정명기, 「〈홍순언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연구」, 『성곡논총』 2, 성곡인문문화재단, 1989, 565~619쪽; 박홍갑, 「홍순언 행적과 기억과정」, 『청계사학』 23, 청계사학회, 2021, 79쪽.

홍은 가난해져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홍이 출발하기 전에 돈을 빌려주었던 친구들은 그들이 빌려 준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외면했으며, 홍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폭행을 행사했다. 그리고 홍은 진정 아주 강력하게 서울을 떠나도록 강요받았으며 결국 남쪽 지방으로 갔다. 그러나 할 일도 없고, 친구도 없었던 곳에서 그는 마침내 가장 낮은 신분인 거사가 되었다. 거사는 소위 사당이라고 불리는 기생들 신분들을 위한 유랑 연주단의 한 분류로, 그들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울 출입조차 금지된 천민 신분이었다.²²⁾

이와 같은 변별되는 지점은 ⑭〈점쟁이의 운명〉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⑭〈점쟁이의 운명〉은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이다. 아차고개 전설은 잘못된 판단을 깨달은 주체가 ‘아차’라고 후회하는 감탄사를 언급하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종결된다. ⑭〈점쟁이의 운명〉 역시 이러한 장면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왕은 슬픔에 잠겨 자신의 인장을 가진 사람을 보내 처형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기수가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아주 큰 소리로 (집행을 정지하라고 외쳤지만) 집행자들은 너무 오래 지체했다고 꾸중을 들을 것을 염려하여 불쌍한 점쟁이를 즉각 처형했다. 그 관리가 도착했을 때 너무 지체된 것을 알고 너무 늦었다고 탄식하는 의미로 “아차”라고 외쳤다. 그래서 근처의 산길은 여전히 “아

22) Hong returned to Korea a poor man. Friends who had advanced sums of money to him before his departure, finding their money gone, deserted him, and did him all the injury they could: so much so in fact, that he was compelled to leave Seoul and go to the Southern Provinces, where knowing no trade and having no friends, he finally fell to the lowest station—that of *Kuh Sah*(거스), a sort of travelling musician for the class of dancing girls called *Sah Tong*(사당), who wander about the country and pick up a precarious living by giving performances. They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capital (〈Kong Dang Koh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March, p.108).

차 고개”라고 불린다.²³⁾

그러므로 ⑭〈점쟁이의 운명〉은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은 분명하다. 그러나 점쟁이의 명성이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사연은 현전하는 각편들과는 변별된다. 아차고개 전설에서 점쟁이는 대체로 홍계관이라는 맹인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⑭〈점쟁이의 운명〉에서 점쟁이의 이름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홍씨 맹인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홍계관이라 생각된다. ⑭〈점쟁이의 운명〉에서는 가난하고 불행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던 노총각이 홍계관을 찾아가 사는 것보다 죽을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묻자 홍계관은 힘센 하인에게 그 총각을 남대문 밖에 데려가 두고 오라고 했고 총각은 그곳에서 죽은 시체가 든 자루 안에 살아 있었던 젊은 양반 여인을 만나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며 이 사연으로 인해 홍계관의 명성은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불쌍한 총각은 늙은 점쟁이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자신을 죽게 하려고 그곳에 보냈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담 근처로 기어가서, 담에 매달린 천연두 시체가 들어가 있는 짚으로 만든 자루 아래에서 잠을 자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신이 들어 있는 자루 안에서 나는 소리에 주목했다. 일어나서 자루를 열어보니, 십육 세의 소녀가 나왔다. 가난한 총각은 귀신을 본 줄 알았지만, 소녀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분명 죽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천연두를 앓지 않은 남동생이 있어서, 그가 병에 걸려 죽을까 봐 제가 묻히지

23) The king was grief-stricken and ordered a man to ride rapidly with his seal and stay the execution. When the rider reached the ferry he called as loudly as he could, but the executioners, thinking they had tarried too long and were to be reprimanded for it, cut off the poor fortune-teller's head at once. The officer, on arriving and finding it too late, exclaimed Ah Cha and ejaculation meaning just too late. Hence the mountain pass near by is still called Ah Cha Pass(〈A Fortune-Teller's Fat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July, p.274).

못하고 여기 두었어요. 제 아버지는 높은 양반이시고, 저는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발 가서 제가 죽지 않았다고 아버지께 전해주셔서 저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총각은 그렇게 했고, 한밤중에 그 집에 도착했다. 그 높은 분은 그를 바보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소녀의 어머니는 그를 믿고 하인들에게 가마를 보내 그와 함께 가게 했다. 그들은 보고된 대로 소녀를 찾아 부모에게 데려왔다. 아버지는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총각에게 감사했으며 가난하고 집도 아내도 없는 남자를 딸의 구원자로 여겨 딸을 그와 결혼하게 하여 그들은 충실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왕은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맹인 점쟁이를 불러 질문하기 시작했다.²⁴⁾

위 인용문에서 제시된 부분은 현전하는 여타의 아차고개 전설의 각편에

24) The wretched boy, thinking the old fortune-teller had taken him at his word and sent him out there to die, crept up near the wall in the darkness, and was going to sleep under the body of a small-pox corpse suspended in straw bags from the wall. By and by he was attracted by a noise from inside the wrapping of the corpse. Getting up he opened the mats and out stepped a girl of sixteen years of age. The poor bachelor thought he had seen a ghost but the girl quieted him saying; “I must have been thought dead, and as I have a younger brother who has not had small-pox, I could not be buried till he has had the disease, lest he die, therefore they have placed me here. My father is a great Yan Ban, and I was an especial favorite with him. I wish you would go and tell him I am not dead so that he may send for me.” The bachelor did so, arriving at His Excellency’s house at midnight. The great man thought him a fool or worse, but the girl’s mother believed him and sent servants with a chair to go with the man. They found all as was reported and brought the girl to her parents. The father’s gratitude now knew no bounds and, considering the poor homeless, wifeless man, his daughter’s savior, he let him marry her and they became a devoted, happy pair. The king, hearing of this wonderful occurrence, called in the blind man and began questioning him(〈A Fortune-Teller’s Fat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July, pp.273~274).

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The Korean Repository*에 Allen이 수록한 보은단동과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은 많이 알려진 유명한 전설이지만 현전하는 각편들과는 변별된다.

(3) 정릉과 관왕묘의 조성담

*The Korean Repository*에는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 정릉과 관우의 무덤인 관왕묘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표3】의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와 ②〈정동〉은 정릉, ⑧〈서울에 있는 전쟁의 신과 그의 사당〉은 관왕묘 가운데 남묘와 동묘에 대한 이야기이다. 정릉에 대한 이야기는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가장 먼저 수록한 설화인데 정릉과 관련된 설화를 두 편이나 수록했다는 점에서 정릉에 대한 그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의 내용은 ②〈정동〉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②〈정동〉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다. ②〈정동〉은 정릉에 관한 네 편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태조 이성계의 신덕왕후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전개된다.

첫 번째 이야기의 주된 서사는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와 혼인하기 전 신덕왕후의 예의와 지혜에 매료되었다는 것이다. 태조가 여행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던 중에 목이 말라 우물가에 있던 한 여인에게 물을 요청했다. 그 여인이 바가지에 버드나무 잎을 넣어 주었기에 물을 마시는 것이 불편하여 태조가 그 이유를 물었다. 여인은 지치고 더운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병이 나거나 죽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천천히 마시도록 한 배려였다고 대답하여 태조가 감탄했고 그 여인이 바로 태조의 계비인 신덕왕후였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태조가 신덕왕후를 계비로 맞이한 후에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나 신덕왕후가 불치병에 걸려 죽기 전 남긴 유언으로 정릉의 자리를 정했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신덕왕후가 남긴 유언은 아름다운 연을

만들어서 그 연을 날린 후에 줄을 끊고 연이 떨어진 장소에 자신을 묻어 달라는 것이었다. 태조는 왕후가 죽은 후 연을 만들어 날렸는데 연이 떨어진 장소가 바로 태조와 왕후가 처음 만났던 버드나무 우물기였다. 이 장소가 곧 정릉의 장소가 되었고 이후에 Allen의 주거지와도 밀접했던 영국총영사관 자리가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릉의 묘를 관리하던 노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선덕왕후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지극했던 태조는 매일 정릉을 찾아갔는데 당시 정릉을 지키고 있었던 묘지기는 팔십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는 나이가 들어 힘들게 벼슬을 하게 되었으나 태조가 정릉을 돌보고 가꾸는데 너무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였기에 결국 관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②〈정동〉뿐만 아니라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도 제시되어 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릉과 관련된 현전하는 각편에서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②〈정동〉에서만 수록되어 있으며 태조의 선덕왕후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정릉이 도성 밖으로 이전할 때 태조의 꿈에 왕후가 나타나 요청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왕후는 예전의 방식처럼 연을 날려 떨어지는 장소에 자신의 무덤 자리를 정해 줄 것과 무덤 근처에 이름다운 사찰을 지어 방문객들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 주게 해 줄 것 그리고 산 주위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하여 자신과 아픈 사람들이 물소리로 마음을 달래고 계곡에서 목욕을 한 사람들은 질병을 낫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조는 꿈 속에서 왕후가 요청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정릉을 이전했으며 정릉이 있는 사찰 근처의 계곡에서 목욕을 하면 어떠한 질병이든지고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와 ②〈정동〉에 수록되어 있는 정릉에 대한 이야기는 태조의 선덕왕후에 대한 애정담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정릉의 원래 위치가 바로 Allen의 주거지였던 정동이며 당시 영국 총영사관이 있던 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국 총영사관이 있었던 정동에 얽힌 정릉에 대한 이야기를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를 통해 가장 먼저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했으며 ②〈정동〉을 통해 반복하면서 더욱 구체화하여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⁵⁾

Allen은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뿐만 아니라 관왕묘에 대한 관심도 지대했다. ⑧〈서울에 있는 전쟁의 신과 그의 사당〉의 서두에는 관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언급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Allen이 직접 관찰한 듯한 북묘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왕묘의 조성담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남묘와 동묘가 지어지게 된 원인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관우의 추천으로 이여송, 이여백, 이여매 세 장군이 조선에 와서 일본군과 싸웠고 승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거대한 바람과 같이 날아온 관우의 영혼이 서울의 남대문 밖의 한 장소에서 솟아 나와 일본군들을 몰살한 후 다시 동대문 밖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사당이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남묘와 동묘라는 어휘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적인 정황과 실제 역사적 사실을 감안한다면 남대문과 동대문 밖에 지어진 관우의 사당은 남묘와 동묘임은 명확하다.²⁶⁾

(상략)관왕장은 황제의 승낙을 받은 후에 거대한 바람이 된 것처럼 국경을 넘어 조선으로 갔다. 어느 날밤 관우의 영혼은 서울의 남대문 밖의 한 장소에서 솟구쳐 나와 도시를 가로지르며 적군 즉 일본군들을 죽이고 몰아낸 후에 다시

25)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의 전반부는 ②〈정동〉에 수록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이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후반부는 ②〈정동〉에 수록된 세 번째 이야기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6)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406, 412쪽.

동대문 밖의 땅으로 다시 들어갔다. 각 장소에 전쟁의 신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 사당들이 건립되었으며, 문에는 관우의 말과 마부의 형상이 있으며, 창살이 있는 복도에는 관우의 인생을 대표하는 모습을 묘사한 우의적인 프레스코화 그림이 걸려 있다.²⁷⁾

조선 후기에는 관우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관우는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된 바 있다. 그러므로 Allen은 관우를 ‘전쟁의 신’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4) 원각사 석탑의 전래담과 보신각종의 주조담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원각사의 탑과 종을 관찰하고 관련 설화를 채록하여 수록했는데, 【표3】의 ⑤〈대리석 탑 또는 석탑〉과 ⑦〈큰 종〉이 이에 해당한다. ⑤〈대리석 탑 또는 석탑〉의 경우 설화보다는 탑에 대한 설명과 묘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⑦〈큰 종〉은 설화의 비중이 더 많다. ⑤〈대리석 탑 또는 석탑〉에 수록된 설화는 원각사의 탑이 원나라의 세조가 충숙왕과 혼인한 자신의 딸에게 선물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각사의 탑은 고려 중기 남경에서 배로 운반되었고 이후에 고려를 방문한 세조는 탑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고 되어 있다.

27) He asked for the Emperor's seal, and was seen as a great wind sweeping over the border into Korea. One night his spirit arose out of the ground at a spot outside the South Gate of Seoul and passing over the city slew and drove out the enemy, and then reentered the ground outside the East Gate. At each of these place fine temples were erected to the memory of the God of War, with models of his horse and groom at the gate, and an allegorical fresco in a grated corridor describing the chief scenes in the life of Kwan (<THE GOD OF WAR AND HIS TEMPLES AT SEOU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April, pp.186~187).

한 조선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중기의 왕이었던 충숙왕이 1269년에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1367년까지 통치한 몽골 원나라의 통치자인 세조의 외동딸과 결혼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탑은 세조가 자신의 딸에게 선물로 보낸 것이라고 한다.(중략) 그러나 이 탑은 당시의 수도가 송도였으며 912년부터 1392년까지 지속된 고려 왕조 중반에 남경에서 바닷길을 통해 반입되었다.(중략) 탑이 완공된 후, 기증자인 왕후의 부친인 황제가 고려를 방문하여 건축물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고 한다.²⁸⁾

실제 원각사의 석탑은 세조 13년에 완공된 것으로 중국에서 전래되지는 않았다.²⁹⁾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각편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충숙왕의 딸인 금동 공주가 명나라 태자와 강제로 혼인한 후에 갈 수 없는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두 개의 탑을 만들어 각각 경천사와 원각사의 전신인 흥복사로 보냈다는 각편이 존재한다.³⁰⁾

⑤〈대리석 탑 또는 석탑〉에 원각사의 석탑과 관련된 내용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석탑을 관찰하고 묘사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28) One native written account states that a monarch of the middle period of the Korai dynasty, Chung Soo Yang, was married to the daughter(an only child), of Sai Cho, one of the rulers the Mongolian Yuen or Won, Dynasty, which overthrew the Sung Dynasty about 1269 A. D. and ruled over China till 1368 A. D. This Sai Cho is said to have sent this pagoda as a present to his daughter.(...)However, the pagoda came, by water, from Nanking during the middle of the Korai Dynasty which lasted from 912 A. D. to 1392 A. D. with the capital at Songdo.(...)When all was completed it is said that the donor—the Imperial father of the Queen—made a visit to Korea to see the greatly pleased with it (〈THE MARBLE PAGODA : OR STONE PAGODA〉,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April, pp.127~128).

29) 김영수, 「흥복사지와 원각사의 역사적 의미」, 『탑골공원의 역사적 의미』, 덕주, 2024, 69쪽.

30) 송인성, 〈탑골 공원 안에 세워진 탑(금동 공주의 지극한 효성)〉, 『서울의 전설』, 학술자원공사, 1994, 29~34쪽.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석탑이 완공되기 전인 세조 11년에 보신각종으로 불리는 원각사 종이 먼저 완성되었다고 한다.³¹⁾ 보신각종에 대한 이야기는 ⑦〈큰 종〉에 수록되어 있는데 ‘보신각종’이라는 명칭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종의 이름이 사람이 결정한다는 의미의 인종으로 되어 있으며 동대문에서 서대문을 이어주는 도시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데 저녁에 궁궐의 종이 울린 후에 큰 종이 따라 울리며 성곽의 문이 모두 닫힌다는 내용으로 봐서 보신각종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³²⁾ ⑦〈큰 종〉에는 종을 주조할 때 아이를 바쳤다는 에밀레종 전설로 알려진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태조는 이 종을 더 크게 다시 만들기로 결심하고 모든 관리와 수령들에게 금속을 모으라고 명령했다. 이 수집이 경성 안에서 진행되는 동안 한 수집가가 한 집에서 세 살된 남자 아이를 업고 있는 나이 든 여자를 불렀다. 그 노파는 금속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했다. 더 정확하게,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바칠까요?” 그녀의 어조는 동의를 의미했다. 그 남자는 가서 이상한 사건을 말했고 결국 그 이야기는 서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중략)이 큰 종의 웅장한 소리는 마치 적막한 도시에 “에밀레”라는 말이 길게 울려 퍼지는 것과 같았으며 “레”는 특히 길게 울려 퍼졌다. 이것은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의미이며, 종을 주조하기 위해 녹인 금속에 빠진 아이의 울부짖음의 소리이다.³³⁾

31) 김영수(2024), 「홍복사지와 원각사의 역사적 의미」, 앞의 책, 69쪽.

32) The bell was set up in the center of the city, where street leading from the East to the West Gate. When the Palace bell rings in the evening this great bell follows and then the city gates are all closed for the night. The name of the bell is “In Jung” “Man decides” meaning that the men on hearing its tones decide to go to bed.(…)(THE BIG BEL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April, p.132)

33) Tai Jo decided to reproduce this bell upon a larger scale and gave orders to all the governors and magistrate to collect the necessary metal. While this collection was made in the An Eye district of the Kyeng Sung province, the

미국인인 Allen이 보신각종을 성덕대왕 신종과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차상찬(1887~1946)이 채록한 보신각종의 이야기 또한 에밀레종 전설과 동일하게 확인된다.³⁴⁾ 그렇다면 에밀레종의 전설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전반에 이르는 시기에 성덕대왕 신종뿐만 아니라 보신각종에 대한 이야기로도 향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조선인의 저력과 민족성에 대한 칭송담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여덟 편의 민담을 수록했다. 【표3】의 ⑨~⑫, ⑭~⑰이 민담에 해당되는데, ⑫〈한국의 관습들-무당〉의 경우 【표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화는 기사의 후반부에 일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수록된 민담은 대체로 조선인의 저력과 민족성을 칭송하는 서사로 전개된다. 본 절에서는 민담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크게 임금, 학자, 민중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태조와 영조의 선치민정담

*The Korean Repository*에는 태조와 영조의 선치민정을 칭송하는 이

collector called at a house where he saw an old woman with a three year old boy strapped to her back. The hag said she had no metal, but the man might take her boy, or more properly, “Shall I give you the boy?” signifying consent by her tone. The man went on but told of the strange incident and it eventually became known in Seoul.(...)The deep rich tones of this large bell as they roll across the quiet city seem to say with long drawn cadence-“Ah Mey la” the “la” being especially prolonged. This means “mother’s fault” and is the cry of the child who was dropped into the molten metal to secure the proper cast of the bell(THE BIG BELL,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April, pp.131~132).

34) 차상찬, 〈기괴한 인경의 전설〉, 『보신각종 이야기』, 운이퍼브, 2019; 松雀生, 「오래 인명어리 鐘路인경의신세타령」, 『차상찬 전집』 5,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21, 526~529쪽.

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⑰〈태조와 쥐〉는 태조가 승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여 사찰을 보수하고 또 다른 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며 ⑩〈효행에 대한 보상〉과 ⑭〈정직에 대한 보상〉은 영조가 가난한 민중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여 그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⑰〈태조와 쥐〉는 이성계가 태조가 된 정당성과 그의 불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이 이야기에서 이성계는 소년 시절에 석왕사에서 공부하던 중에 반복적으로 출현한 큰 쥐를 따라갔다가 바위 밑에서 ‘開金者朝鮮太祖’와 ‘黃金萬兩’이라는 글귀를 발견했다. 이 글귀를 발견한 후 이성계는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더욱 충실하여 태조가 되었다. 태조가 된 후에 석왕사의 승려가 자신을 찾아와 사찰 수리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黃金萬兩’이라는 글귀를 발견했던 바위를 승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바위 밑에서 발견한 황금으로 석왕사를 재건하고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작은 사찰과 집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태조의 신비스러운 능력과 더불어 불교에 대한 지원을 칭송한 이야기로 보인다.

⑩〈효행에 대한 보상〉과 ⑭〈정직에 대한 보상〉은 모두 영조가 가난한 민중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어 벼슬을 할 수 있게 한 이야기이다. ⑩〈효행에 대한 보상〉은 암행을 나갔던 영조가 문필 능력은 뛰어났지만 너무 가난하여 부친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누이가 자른 머리카락을 팔아 경우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어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효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게 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현전하는 각편들은 대체로 영조가 아닌 숙종이 등장한다.³⁵⁾

그리고 ⑭〈정직에 대한 보상〉에서는 풍년이 든 어느 해 영조가 은, 쌀, 꿀, 약식 등으로 가득 채운 상자를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탁성체 부부의 집에 보냈지만 부부는 음식만 먹고 ‘은’은 상자에 보관해 두고 사용하지

35) 최병렬, 『서울민속대관-6.구전설화편』, 서울특별시, 1994, 135~136쪽; 홍태한,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민속원, 2000, 18~19쪽.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도움으로 탁성체는 결국 과거 시험을 보아 벼슬을 할 수 있었으며 훗날 영조와 재회하여 그 사실을 알렸고 영조는 그가 사촌의 반역죄에 연루되었을 때도 탁성체를 사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진까지 시켜주고 진귀한 선물까지 내려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⑰〈태조와 쥐〉,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 세 이야기는 각각 태조와 영조가 승려와 가난한 백성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하여 불교가 융성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 임금의 선치민정을 드러낸 이야기로 보인다.

(2) 조선 학자의 난제 해결담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서 중국의 황제가 조선 학자의 학문적 능력의 우월함에 대해 높이 평가한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와 같은 이야기를 수록했다. 이 이야기에는 이중기와 이하성이라는 조선의 학자가 등장하는데, 중국 황제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이들은 중국에 가서 황제의 요구대로 하룻밤 동안 백수의 시를 짓는다. 심지어 이들은 난방도 되지 않는 냉방에서 불빛도 없이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시를 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의 황제는 조선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결심하는 것이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의 중심 내용이다.

(상략) 어느 날 밤에 황제는 그들에게 날이 밝기 전까지 백 수의 시를 짓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은 불빛도 없이 경비병들이 주변을 지키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누구와의 연락도 금지되었다. 그들은 슬펐다. 그들은 시의 주제를 받고 이중기는 비록 춥고 졸렸으며 배가 고파지만 불빛 아래에서 이하성이 시를 받아적을 수 있다면 자신은 시를 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하성은 이중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본인은 기꺼이 시를 받아적겠다고 했다. 그래서 종이를 받고 먹과 붓이 준비되자, 눈을 꼭 감고 있

다가 시가 구술되자 빨리 시를 받아 적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마침내 시는 완성되었고, 그들은 완성된 시를 황제에게 보냈다.

황제는 그들이 있었던 방에는 불빛이 없었다는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아주 많이 놀랐다. 그리고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있음은 확실하다. 나는 그들을 놓아 주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하략)³⁶⁾

이처럼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중국 황제가 조선에 요청한 어려운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전개되는 난제 해결형 한·중 대결담의 형태와 유사하다.³⁷⁾ 특히 최치원과 관련된 난제 해결담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최치원 역시 당대 중국에서 명성을 높인 학자였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조선 학자의 학문적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조선인의 저력과 민족성을 칭송담의 면모를 드러낸다.

36) (...)One night the Emperor sent word that they must prepare one hundred stanzas of poetry before day-light on penalty of death. They could obtain no light, and guards, placed all about them, prevented their communicating with anyone who might aid them. They were very sad. The subject had been given them and Ye Chung Gee, though cold, sleepy and half starved, declared he could dictate the verses if they only had a light by which Ye Ha Sung could write them down. The latter said he would attend to the writing, however, if his companion could do his part. So, spreading out a sheet of paper and preparing his ink and brushes he held his eyes tight shut for a time while the poet dictated, and then suddenly his part of the work. This was repeated again and again till the poem was complete, when they sent it in to the Emperor.

The Emperor was greatly surprised, learning from the guards that no light had been admitted to the room, and he said, “Korea, though small, certainly has skillful people, I will let them alone and make friends of them.”(...)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The Korean Repository*, vol.Ⅲ, July, 1896, pp.276~277)

37) 김일렬, 「난제해결형 한·중대결담의 전승과 성격」, 『한국설화의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새문사, 2006, 80~134쪽.

(3) 민중의 지혜담·무용담·예언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민담 가운데는 지배층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지닌 민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다. 【표3】의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 ⑪〈숙련된 검객〉, ⑬〈부석의 기원〉, ⑫〈한국의 관습들-무당〉이 그러하다.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에서는 재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바보가, ⑪〈숙련된 검객〉에서는 중국의 장수 이여송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조선의 무명 검객이, ⑬〈부석의 기원〉에서는 폭군을 처형하는 민중들이, ⑫〈한국의 관습들-무당〉에서는 태조보다 능력이 뛰어난 무당이 등장한다.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은 재상인 사촌에게 바보로 취급받던 인물이 재상을 속여 벼슬을 한 후에 많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성공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보는 평상시 겹점말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촌에게 흰색 조랑말을 구입한 후 김정색 칠을 한 말을 주고 사촌의 도움으로 벼슬을 한다. 그러나 바보는 벼슬을 하자마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다. 이 사실이 들통이 나자 재상은 바보를 잡아들이기 위해 여러 명의 관리들을 보내지만 바보는 오히려 사람을 매수하여 재상이 보낸 관리들을 위협하거나 조롱하여 돌려보낸다.³⁸⁾ 결국 재상은 바보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바보를 잡으러 간 관리를 해고한다. 이처럼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에는 지배층보다 더 뛰어난 지략을 지닌 민중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⑪〈숙련된 검객〉에는 용맹한 조선의 무명 검객이 등장한다. 무명의 검객은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남아 정권을 획득

38) 자신을 잡으러 온 겁이 많은 관리에게는 호랑이 가죽으로 위협하여 도망가게 하며 술을 좋아하는 관리에게는 만취하게 한 후에 쌀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불도에 관심이 많은 관리에게는 마치 신선의 세계에 온 것처럼 속여 백오십 년의 시간이 흐른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이여송을 겁박하여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검객은 이여송과 직접 대결하지 않는다. 검객은 먼저 이여송에게 나무의 잔가지를 해치지 않고 나뭇잎을 모두 자르는 검술을 보인 후 이여송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수염을 잘라 두려움에 떨게 한다. 다음 지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여송은 검객의 검술에 놀라 감탄하고 놀라 더 이상 조선에 머무를 수가 없어 중국으로 돌아간다.

(상략) 그는 춤을 추면서 잔가지를 해치지 않고 나뭇잎들을 모두 자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여송 장군은 아연실색했고 그 검술에 상당히 감탄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승려의 복장을 한 검객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중국에서 가장 최고의 검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검술을 모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소년들은 칼로 당신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방금 내가 한 것을 당신이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턱수염을 보세요.”

이여송 장군은 아래를 보고 자신의 긴 수염을 만졌으나 수염은 사라지고 없었다; 수염은 그 승려의 복장을 한 검객에 의해 깔끔하게 잘려 나가 그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검술의 명장면은 이여송이 그러한 놀라운 기술을 가진 백성들의 통치자로서 그를 조선에 더 머물러고 했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 승려의 복장을 한 검객은 안전하게 진을 떠났으며 이여송은 곧 자신의 고국으로 떠났다. 임금은 능숙한 기술을 가진 검객에게 높은 벼슬과 값비싼 선물로 보답했다.³⁹⁾

39) (...)He said he could cut off all the leaves of the trees near by while dancing, and not harm a twig. He did so. The General was dumbfounded and showed the liveliest appreciation of the feat.

“Well.” said the Priest, “you say you are the best swordsman in China. I can show you that you know nothing about it. Why even our boys can excel you with the sword. As an instance, I will show you that you have not even seen what was done by me just now, Look at your beard.”

이처럼 ⑪〈숙련된 검객〉에는 무명 검객의 용맹이 부각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중의 모습은 ⑫〈부석의 기원〉에서 더욱 부각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궁예라는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현전하는 궁예 이야기와 동일한 서사로 전개된다. 음력 5월 5일에 태어난 신라의 마지막 왕의 아들이 부친에게 버림을 받은 후 성장하여 부친을 처형하고 폭군이 되어 삼방령에서 민중들에게 살해당한다는 서사는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궁예의 이야기와 동일하다.⁴⁰⁾ 그러므로 ⑫〈부석의 기원〉은 궁예의 이야기로 보인다. 그러나 Allen이 ‘부석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설정한 것은 재상 및 관리들이 민중들의 폭정에 대한 불만을 궁예에게 언급하자 궁예는 다음 인용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바위가 벌레가 먹은 것과 같이 변한다면 행동을 바꾸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상과 모든 관리들은 왕에게 자신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개혁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 왕조가 끝날 수 있다고 간청했다.

“나의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왕은 오만하게 말했다. “백성들과 같은 벌레들은 참나무의 심장을 먹고 그것을 파괴하지만 나의 통치는 단단한 바위와 같다.

The General looked down and felt for his long whiskers, but they were gone; they lay in his lap cleanly cut away by the sword of the Priest.

That display of swordsmanship cured the General of any further longings to impose himself as ruler upon a people of such marvellous skill. The Priest left the camp in safety and the General soon took his departure for home. The King rewarded the skillful swordsman with high rank and costly presents(〈THE SKILLPUL SWORDSMAN.〉,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December, p.465).

- 40) 김부식 지음, 이강래 옮김, 「열전 제10 궁예, 견훤」, 『삼국사기』Ⅱ, 한길사, 2021, 874~881쪽; 조현설, 「궁예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2, 한국구비문학학회, 1995, 168~169쪽; 유인순, 「궁예왕 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2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2, 81~82쪽.

사람들이 내 왕조를 해칠 수는 없다. 바위가 벌레 먹은 것처럼 되면 그때 내 행동을 바꾸겠다.”

그날 밤, 재상은 산에서 우르릉거리면서 맷돌 가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보니 수많은 벌레들이 바위를 갉아 먹고 있었다. 그는 돌아가서 그가 본 것을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재상과 함께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직접 확인했다; 이런, 세상에! 바위들은 모두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고, 표면은 마치 천연두 자국과 같은 구멍들이 나 있었다.

그럼에도 왕은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며 말들이 뿔이 날 때까지는 내 행동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밤, 암말이 뿔 달린 망아지를 낳았다.⁴¹⁾

또한 위 인용문의 마지막에 제시된 바와 같이 궁예는 말들이 뿔이 날 때까지 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뿔이 달린 망아지가 태어나고 말았다.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궁예는 도주하다가 삼방령에서 백성들에

41) The Prime Minister and all the official begged the king, for his own good as well as the best interests of the country, to reform and relieve the condition of the people, otherwise they might revolt and terminate the dynasty.

“My dynasty is permanent.” said the king haughtily. “Worms, like the people, may eat the heart of the oak and destory it but my reign is like that of the solid rock. The people can no more harm my dynasty than worms can eat solid rock. When the rocks are worm-eaten then I will think of changing my conduct.”

That night the Prime Minister heard a rumbling, grinding sound in the mountain and going nearer he saw countless worms grinding their way into the stones. He returned and reported what he had seen to he King who went with him in the morning light to see for himself; when lo! the rocks were all porous and worm-eaten, while their surfaces were as tho marked with the pits and seams of small-pox.

Yet the king refused to heed the admonition of his officers and said that he would not do so till the horses wore horns. That night a mare gave birth to a colt with horns(THE ORIGIN OF THE PUMICE STONE, *The Korean Repository*, vol. III, July, p.278).

게 살해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종결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는 폭군을 살해한 민중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⑫〈한국의 관습들-무당〉에서는 무당이 태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으며 왕이 된 후에 무당이 가르쳐 준 곳에서 발견한 돈으로 서울의 도시와 성곽을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기사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태조에게 돈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준 무당은 과거에 태조가 죽이려고 했던 여우였던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서 무당은 신비스러운 존재로 태조에게 한 예언은 모두 적중했으며 태조는 무당의 예언과 지시에 따라 서울의 도시와 성곽을 건설할 수 있었기에 태조보다 우위에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 ⑪〈숙련된 검객〉, ⑬〈부석의 기원〉, ⑫〈한국의 관습들-무당〉의 네 편의 이야기는 모두 조선인의 저력과 민족성을 칭송하는 면모를 드러낸다.

4. *The Korean Repository* 속 Allen의 설화 수록의 의의

1) 19세기 말 조선의 정치와 외교 담론의 투영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 가운데는 현전하는 설화와 동일한 각편도 있지만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각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⑨〈경복궁〉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승려 만인에게 들은 예언 가운데 후손이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은 현전하는 화계사의 전설과 동일하다.⁴²⁾ 그러나 승려 만인의 예언과 요청으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했다는 내용은 ⑨〈경복궁〉에서만 확인된다. ⑨〈경복궁〉에서

42) 사찰문화연구원, 『서울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출판국, 1994, 177~178쪽; 고영섭,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인물-조선왕실과 대원군가의 불교인식 및 교봉과 숭산」, 『한국불교사연구』 4, 한국불교사학회 불교사연구소, 2014, 193~194쪽.

만인의 예언이 적중하여 대원군의 아들이 실제로 고종이 되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이야기는 대원군의 경복궁 재건에 대한 정당성과 신성성을 부여하여 왕권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⑥〈서울 전반에 나타난 화신의 흔적〉에서는 경복궁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해태의 석상과 연못을 조성한 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19세기 말 경복궁에 얽힌 이야기는 신성화된 형태로 향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희궁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다. ③〈뽕나무 궁궐〉에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무학대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희궁의 자리를 정한 태조와 정도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이야기 또한 ③〈뽕나무 궁궐〉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태조와 정도전은 경희궁이 아닌 경복궁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설화 역시 그렇게 현전한다.⁴³⁾ 또한 ③〈뽕나무 궁궐〉에서는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고 3일 동안 왕을 자처하면서 머문 곳이 경희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이괄이 머물렀던 곳은 경복궁이었다.⁴⁴⁾ 그러므로 ③〈뽕나무 궁궐〉에는 경복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투영된 이야기들이 경희궁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경복궁을 신성시하고 경희궁을 폄하시킨 이야기는 19세기 말 조선의 정치 담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llen이 조선에 머물렀던 19세기 후반은 고종이 집권하고 있었으며 고종의 집권 초기에 경복궁은 재건되었다. 경복궁 재건 당시 흥선대원군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경복궁의 재건 또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태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③〈뽕나무 궁궐〉뿐만 아니라 ①〈한국의 진실된 이야기〉②〈정동〉에서 태조가 죽은 선덕왕후에 대한 지나친

43) 최병렬, 〈경복궁 터전과 보리밭 먹기〉, 『서울민속대관-6.구전설화편』, 서울특별시, 1994, 61쪽; 유본에 지음, 박현욱 옮김, 『역주 한경지략-조선시대 서울의 역사지리지』, 민속원, 2020, 22쪽.

44) 홍순민, 『도성-왕도 한양의 경계, 임금과 백성을 지킨 성곽』, 놀와, 2017, 120~121쪽.

애정으로 정릉의 늙은 묘지기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결국 묘지기가 업무를 그만두었다는 이야기와 ⑦〈큰 종〉에서 태조가 보신각종을 만들면서 아이를 넣어 주조했다는 에밀레 전설과 여우의 능력을 빌어 수도를 건설했다는 ⑫〈한국의 관습들-무당〉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의 건국 주체였던 태조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역시 19세기 말 경복궁의 재건과 관련하여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담론이 투영된 면모로 보인다.

경복궁의 재건으로 인해 경희궁은 개간되기 시작했고 일부 건물들을 해체하고 그 목재를 경복궁의 재건에 사용하면서 궁궐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한다.⁴⁵⁾ 더구나 고종은 1897년에 경복궁에서 경운궁으로 이어졌지만 1885년에는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어졌고 Allen은 이 행렬을 직접 구경했다.⁴⁶⁾ 이처럼 경복궁은 19세기 말 법궁으로서 왕권을 상징하는 장소였다. Allen은 고종과 친분이 두터웠고 흥선대원군과 만나기도 했으며 그의 권력을 인정했고 그의 권력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다.⁴⁷⁾ 따라서 경복궁과 경희궁에 얽힌 이야기, 정릉의 조성담과 보신각종의 주조담에서 확인되는 새로운 각편들은 조선 건국의 주체였던 태조를 부정하면서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19세기 말 정치 담론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관왕묘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⑧〈서울에 있는 전쟁의 신

45) 홍순민, 『궁궐』(하), 놀와, 2017, 432쪽.

46) H. N. Allen(2017), 앞의 책, 68쪽.

47) 어제 나는 국왕의 아버지 大院君을 拜謁하는 영광을 가졌다. 대원군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거의 한 시간동안 나의 손을 잡고 온정을 베풀었다. 그는 閔泳翊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長壽할 수 있도록 보약을 지어달라고 청했다. (중략)나는 그가 강한 의지와 신념, 정직하고 결의에 찬 인간이라 생각되며, 이 모든 그의 인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은 친절한 온정이라 생각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中心을 꿰뚫어 감동시킬수만 있다면 그와 확고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宣敎師業을 인정한다면 선교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다(H. N. Allen(2017), 위의 책, 106쪽).

과 그의 사당)에서도 확인된다. 남묘와 동묘는 이미 선조 대에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그리고 고종 때에는 서울에는 북묘와 서묘가 건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왕묘의 건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관계 신앙이 깊었기 때문이다.⁴⁹⁾ 고종 및 민씨 일가와 친분이 깊었던 Allen이 조선에 머물던 시기는 관왕묘가 널리 건립되었던 시기였기에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남묘와 동묘에 얽힌 이야기 또한 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관왕묘의 조성담에는 정치 담론뿐만 아니라 외교 담론도 투영되어 있다. ⑧<서울에 있는 전쟁의 신과 그의 사당>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진왜란 발발 당시 관우의 영혼이 나타나서 조선을 도와 일본의 군사를 죽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왕묘의 조성담에는 관우를 신격화하여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섬긴 조선의 중국에 대한 지극한 사대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⁵⁰⁾ 이러한 면모는 ⑤<대리석 탑 또는 석탑>에서 확인되는 원각사 석탑의 전래담에서도 확인된다. 원각사의 석탑은 세조 13년에 조선에서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⑤<대리석 탑 또는 석탑>에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고종을 포함한 일부 지배층들의 19세기 말 중국에 대한 외교 담론이 투영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와 ⑩<숙련된 검객>에서는 중국에 대한 상반된 외교 담론이 투영되어 있다.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에서는 중국 황제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진압하는 조선 학자들의 우월한 작시 능력

48) 그러나 관우 신앙은 민간으로는 널리 전파되지는 못했고 임금과 일부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필래, 『관우설화 연구』, 『한성어문학』 1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8, 65쪽).

49) 김탁, 『한국의 관제 신앙』, 선학사, 2004, 50~57쪽, 79~90쪽.

50) 관왕묘의 건립을 위해 민중들이 부역으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관제 신앙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배층에서도 관왕묘에 대한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필래(1998), 앞의 논문, 65~68쪽).

이 제시되어 있으며 ⑪〈숙련된 검객〉에서는 이여송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진압하고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뛰어난 검술을 가진 무명의 민중 검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이야기는 관왕묘의 조성담과 원각사 석탑의 전래담과는 달리 중국의 황제 및 장수보다 더욱 뛰어난 학식과 힘을 지닌 조선의 학자와 민중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청나라가 침입했을 당시 홍희문의 ‘화’자가 손상된 이후에 더 이상 현판이 빛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투영된 이야기로 ③〈뽕나무 궁궐〉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이야기는 당대 중국에 대한 자주적이고 부정적인 외교 담론이 투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Allen이 조선에 머물렀던 19세기 말 조선과 중국의 관계는 복잡했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일가들을 포함한 일부 지배층들은 청에 의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등을 거치면서 다수의 지배층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의 중국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독립 의지는 점차 강화되었기 때문이다.⁵¹⁾

2) 조선인의 이타심과 도덕성 및 윤리의식 제시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들 가운데 ④〈공단골〉에서 보은단동이라는 지명과 ⑭〈점쟁이의 운명〉에서 점쟁이의 존재가 임금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이유는 모두 실존 인물인 홍순언과 홍계관이 각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음 만난 중국 여인과 총각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④〈공단골〉에서 ‘홍’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모두 이국에서 만난 여인에게 주고 난 후 조선으로 돌아왔기에 친구들에게 외면과 폭행을 당하고 천민 신분으로 전락했다. 이 내용은 현전하는 홍순언 이야기의 각편과는 변별되는 부분으로 ④〈공단골〉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므로 ④〈공단

51) 김형중,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지주와 독립의 사이」, 『동양사학연구』 140, 동양사학회, 2017, 223~270쪽.

골)에서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에게 도움을 준 ‘홍’의 이타심이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면모는 ⑭<점쟁이의 운명>에서도 확인된다. 유명한 맹인 점쟁이였던 ‘홍’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자살을 고려하고 있는 총각에게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총각이 만난 여인 또한 집에서는 죽은 줄 알고 시신으로 처리했었지만 총각을 만나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내용 역시 현전하는 아차고개 전설의 각편과는 달리 ⑭<점쟁이의 운명>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임금의 성급한 판단으로 ‘홍’은 결국 처형되고 만다. 따라서 ⑭<점쟁이의 운명>에 등장하는 ‘홍’ 또한 이타심을 지닌 인물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조선인들의 이타심은 ⑰<태조와 쥐>,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과 같은 태조와 영조의 선치민정담에서도 확인된다. ⑰<태조와 쥐>에서 태조는 쥐를 따라갔다가 ‘開金者朝鮮太祖’와 ‘黃金萬兩’이라는 두 글귀를 발견하고는 학업에 매진하여 임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黃金萬兩’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태조가 된 이후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석왕사의 승려에게 기부했고 승려는 그 돈을 사찰의 재건과 건립을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에 등장하는 영조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겪고 있는 민중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더불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게끔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⑰<태조와 쥐>,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에 등장하는 조선의 임금들에게서도 이타심은 확인된다.

또한 제목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에서는 조선인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드러난다. 두 이야기에서 영조 임금이 경제적인 궁핍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그들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가난해도 절대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는 정직함에 감탄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가난에서 벗어나 높은 관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올바른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처럼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에는 조선인들의 이타심과 더불어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궁예의 이야기인 ⑯〈부석의 기원〉에서는 집단적인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드러난다. 이러한 면모는 민중들이 폭군을 살해하고 음력 5월 5일에 태어난 아들을 죽이는 관습을 폐지했다는 데서 확인된다. 그들은 살해당한 폭군이 부친에게 버림받지 않고 바람직하게 양육되고 교육을 받았다면 폭군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⁵²⁾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현전하는 궁예 이야기에서 음력 5월 5일에 태어난 궁예가 부친에게 버림받고 폭정으로 인해 민중들에게 살해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음력 5월 5일에 태어난 아들을 죽이는 관습을 폐지했다는 내용은 ⑯〈부석의 기원〉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므로 ⑯〈부석의 기원〉에서는 민중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표출되어 있다.⁵³⁾

이처럼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조선인들의 이타심과 도덕성 및 윤리의식이 표출된 이야기를 수록한 것은 그의 선교사로서의 입지

52) So ended the Silla dynasty, destoryed by son born in the fifth day of the fifth moon and reared in secret by a low slave. Had he been properly cared for and educated he might have been a better man. Therefore the horrible custom of killing these infants is abolished(THE ORIGIN OF THE PUMICE STONE, *The Korean Repository*, vol.Ⅲ, July, p.278).

53) Allen은 1889년에 *Korean Tales*를 간행하면서 〈홍부전〉, 〈춘향전〉, 〈심청전〉의 제목을 각각 “HYUNG Bo AND NAHL Bo Or, The Swallow-King’s Rewards”, “CHUN YANG-The Faithful Dancing-Girl Wife”, “SIM CHUNG-The Dutiful Daughter”로 번안했다. 〈홍부전〉을 번안한 제목은 ⑩〈효행에 대한 보상〉, ⑭〈정직에 대한 보상〉의 형태와 동일하다. 그리고 〈춘향전〉과 〈심청전〉의 제목에서는 각각 춘향의 정절과 심청의 효행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설화를 수록하기 전부터 한국 서사문학에 제시된 조선인들의 이타심과 도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llen은 조선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본분은 선교사였고 실제 조선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 *The Korean Repository*는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구의 선교사들에게 한국을 알릴 목적으로 간행된 출판물이다. 그러므로 설화에서 드러난 이타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의식을 갖춘 조선 민중들의 모습은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일종의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조선 설화에 대한 서구인의 공감 유도와 전파

Allen은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열여덟 편의 설화 가운데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밴 윙클〉과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서구적 제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립 밴 윙클〉은 외교관이기도 했던 Washington Irving(1783~1859)이 독일의 ‘Peter Klaus’ 전설을 소재로 쓴 미국 최초의 근대 단편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⁵⁴⁾ 그리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1839년 영국 작가 Edward Bulwer-Lytton(1803~1873)이 쓴 역사극 〈Richelieu〉에서 처음 등장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⁵⁵⁾

54) 워싱턴 어빙 지음, 박경서 옮김, 『스케치북』, 문학수첩, 2004, 290쪽.

55) 구글 Gemini, “펜은 칼보다 강하다”, https://www.google.com/search?sourceid=chrome&aep=42&source=chrome.crn.rb&udm=50&q=%ED%8E%9C%EC%9D%80+%EC%B9%BC%EB%B3%B4%EB%8B%A4+%EA%B0%95%ED%95%98%EB%8B%A4&mstk=AUtExfBaPOYRFNjLr3aUgg_JEcABvSIozA615YWjzIlouhedVFJcG1c178TjTSpG_oZO7Je4QPHeI-NLmquQyklE98rQH49k5mrvoDjHE2LT0HbCa3T9dHIRSXgir285gJGeUY1PFOI6S_Gzgp5SFa6UigQSWLn111hnWpgtf57Wn-SYGWYnlpOhjQaOTL2Xoko-4DPsU1CaDqVJqZb9GpZaGM2J20-wgQ9ka5w0MO21g9Bp1PuRm87ye4nw02HbuX0TNJlMt8dly6wHly_fOnXPG0ooJ1TL3d5B-exeTarZliPzi59h4Jc4bKj-UyMpKOMTRnNiW4D1KgaB19RWL_y0nFyGCic3VBBC4P98WlyMe9iO3axTndPooXk&cscuir=1&mtid=h72oaYHGE5naptQP1b7HyAY, 접속일자: 2025.12.28.

〈립 벤 윙클〉에 등장하는 주인공 립 벤 윙클은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노인을 따라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미 이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다.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벤 윙클〉에 등장하는 주인공 바보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어사를 속이기 위해 여러 명의 노인을 매수하여 마치 신선의 세계에 온 것처럼 꾸미고 난 후에 시간이 백오십 년이 지났다고 속인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 바보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여러 명의 어사를 속이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이 자체를 Allen은 〈립 벤 윙클〉의 서사와 유사하다고 간주한 것 같다. 그리고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조선 학자들의 학문적 능력이 중국 황제를 굴복했기에 설정한 제목으로 보인다. 이처럼 Allen은 두 이야기의 경우 서구의 이야기 및 격언과 상통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다른 설화에서도 이러한 면모는 발견된다. 1897년 2월 호에는 〈A Korean Methuselah〉, 1898년 6월호에는 〈The Beauty and The Beast(A Korean Version)〉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A Korean Methuselah〉는 ‘Z’라는 필명을 쓰는 인물이 수록한 것으로 동방삭을 므두셀라에 비유한 이야기이며 〈The Beauty and The Beast(A Korean Version)〉는 ‘X’라는 필명을 쓰는 인물이 수록한 것으로 두꺼비 신랑의 이야기를 미녀와 야수의 이야기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⁶⁾ Z와 X 또한 Allen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설화에서 서구의 인물 및 서구의 이야기와 상통하는 지점을 발견했기에 이러한 형태의 제목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표3】에서도 확인되듯이 Z와 X가 이야기를 수록한 시기보다 Allen이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벤 윙클〉과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를 수록한 시기가 앞선다.⁵⁷⁾ Allen은 이미 1889년에 간행한 *Korean*

56) 김성철(2024), 앞의 논문, 287~296쪽.

57) Z와 X가 Allen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Tales에서도 “THE ENCHANTED WINE JUG-Or, Why the Cat and Dog are Enemies.”와 같은 제목의 설화를 수록한 바 있다. 조선의 설화로 이 이야기를 수록했지만 건묘쟁주담의 형태를 취하는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이야기로서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Allen은 조선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서구인으로서 조선 설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⑨〈지혜로운 바보 또는 한국의 립 벤 윙클〉과 ⑮〈펜은 칼보다 강하다〉와 같은 설화를 통해서 Allen 자신뿐만 아니라 The Korean Repository의 독자인 서구인들에게도 공감을 유도하고 전파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부여할 수 있겠다.

5. 결론

이 논문에서는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열여덟 편의 설화를 수록한 배경과 양상 그리고 의의에 대해 고찰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84년에 입국한 Allen은 주로 서울의 정동에 머물면서 고종을 비롯하여 여러 지배층들과 친분을 형성하면서 겪었던 정치적 체험을 기록했고 조선의 민족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인지했다. 둘째,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는 전설과 민담으로 양분되는데, 전자는 서울의 명소담과 명물담이며 후자는 조선 민족의 저력에 대한 칭송담으로 분류했다. 서울의 명소담과 명물담은 경복궁과 경희궁과 관련된 이야기, 보은단동과 아차고개의 지명 유래담, 정릉과 관왕묘의 조성담, 원각사 석탑의 전래담과 보신각종의 주조담의 네 유형으로, 조선 민족의 저력에 대한 칭송담은 태조와 영조의 선치민정담, 조선 학자의 난제 해결담, 민중의 지혜담·무용담·예언담의 세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셋째,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한 설화는 19세기 말 조선의 정치와 외교 담론이 투영되어 있으며 조선인의 이타심과 도덕성이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설화에 대한 서구인의 공감을 유도하고 전파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llen이 *The Korean Repository*에 가장 많은 설화를 수록한 인물이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he Korean Repository*에는 Allen 외에도 Moffett, Jones, Follwell, Random과 X, Y, Z와 같은 인물들이 수록한 설화들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설화 전반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Allen이 수록한 설화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Allen은 1896년 7월까지만 설화를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The Korean Repository*에 수록된 설화 전반에 대한 확장된 논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Korean Repository 1 ~ V.

Horace Newton Allen, *Korean Tales-Being a Collection of Stories Translated From the Korean Folk Lore*, The Knickerbocker press, 1889, pp.1~193.

리진만 편역, 『대한제국 최초의 영문 주간지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9』, 준프로세스, 2025, 1~240쪽.

정성화 엮음, 『근세 동아시아 서양어 자료총서』 138, 경인문화사, 2001, 1~572쪽.

고영섭,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인물-조선왕실과 대원군가의 불교인식 및 고봉과 승산」, 『한국불교사연구』 4, 한국불교사학회 불교사연구소, 2014, 170~239쪽.

권선경, 「The Korean Repository에 나타난 민간신앙 관련 기사의 양상과 의미」,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 순천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2018, 179~204쪽.

김성철, 「“The Korean Repository”, 설화집으로서의 가능성-익명의 저자가 채록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배달말』 75, 배달말학회, 2024, 261~309쪽.

김용석, 『100년 전 선교사의 서울살이』, 서울역사박물관, 2022, 1~239쪽.

김영수, 『탑골공원의 역사적 의미』, 덕주, 2024, 1~376쪽.

김필래, 「관우설화 연구」, 『한성어문학』 1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8, 61~82쪽.

김부식 지음, 이강래 옮김, 『삼국사기』Ⅱ, 한길사, 2021, 485~941쪽.

김일렬, 『한국설화의 민족의식과 민중의식』, 새문사, 2006, 1~325쪽.

김 탁, 『한국의 관제 신앙』, 선학사, 2004, 1~208쪽.

김형중, 「19세기 근대 한·중 관계의 변용-자주와 독립의 사이」, 『동양사학연구』 140, 동양사학회, 2017, 223~270쪽.

박홍갑, 「홍순언 행적과 기억과정」, 『청계사학』 23, 청계사학회, 2021, 47~85쪽.

사찰문화연구원, 『서울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출판국, 1994, 1~471쪽.

송인성, 『서울의 전설』, 학술자원공사, 1994, 3~253쪽.

신미란, 「고종 연간 관우신앙의 유행과 강화지역 관우묘 연구」, 『인천학연구』 41,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24, 51~86쪽.

워싱턴 어빙 지음, 박경서 옮김, 『스케치북』, 문학수첩, 2004, 9~302쪽.

유본에 지음, 박현욱 옮김, 『역주 한경지략-조선시대 서울의 역사지리지』, 민

- 속원, 2020, 1~562쪽.
- 유영렬·윤정란, 『19세기 말 서양선교사와 한국사회-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4, 1~402쪽.
- 유인순, 「궁예왕 전설과 역사소설」, 『강원문화연구』 2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2, 79~117쪽.
- 이순우, 『정동과 각국공사관』, 하늘재, 2012, 1~311쪽.
-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14, 국립민속박물관, 2004, 403~440쪽.
- 정명기, 「〈홍순언 이야기〉의 갈래와 그 의미」, 『동방학지』 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4, 301~341쪽.
- _____, 「〈홍순언 이야기〉의 변이양상과 의미연구」, 『성곡논총』 2, 성곡언론문화재단, 1989, 565~619쪽.
- 조희웅, 「韓國說話學史起稿-西歐語 資料(第1·Ⅱ期)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5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6, 67~86쪽.
- 조현설, 「궁예이야기의 전승양상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2, 한국구비문학회, 1995, 147~173쪽.
- 차상찬, 『보신각종 이야기』, 온이퍼브, 2019, 1~21쪽.
- 차상찬전집 편집위원회, 『차상찬 전집』 5, 강원도민일보 출판국, 2021, 1~574쪽.
- 최병렬, 『서울민속대관-6.구전설화편』, 서울특별시, 1994, 1~444쪽.
- H. N. Allen,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7, 1~732쪽.
- 홍순민, 『궁궐』(하), 놀와, 2017, 1~580쪽.
- _____, 『도성-왕도 한양의 경계, 임금과 백성을 지킨 성곽』, 놀와, 2017, 1~408쪽.
- 홍태한,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민속원, 2000, 1~202쪽.

Captain Basil Hall, *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with an Appendix, Containing Charts, and Various Hydrographical and Scientific Notices*, London: John Murray, Albemarle-Street, 1818, pp.1~484.

『서울지명사전』, <https://history.seoul.go.kr>, 접속일자: 2025.10.20.

구글 Gemini, “펜은 칼보다 강하다”, <https://www.google.com/search?sourceid=chrome&aep=42&source=chrome.crn.rb&udm=50&q=%ED%8E%9C%EC%9D%80+%EC%B9%BC%EB%B3%B4%EB%8B%A4+%EA%B0>

%95%ED%95%98%EB%8B%A4&mstk=AUtExfBaPOYRFNjLr3aUgg
_JEcABvSIozA615YWjzIIouhedVFJcG1c178TjTSpG_oZ07Je4QPHel-
NLmquQyklE98rQH49k5mrvoDjHE2LT0HbCa3T9dHIRSXgir285gJGe
UY1PFOI6S_Gzgp5SFa6UigQSWLn111hnWpgtf57Wn-SYGWYnlpOh
jQaOTL2Xoko-4DPsU1CaDqVJqZb9GpZaGM2J20-wgQ9ka5w0MO21
g9Bp1PuRm87ye4nw02HbuX0TNJIMt8dly6wHIy_fOnXPG0ooJ1TL3d5
B-exeTarZliPzi59h4Jc4bKj-UyMpKOMTRnNiW4D1KgaB19RWL_y0n
FyGCic3VBBC4P98WlyMe9iO3axTndPooXk&csuir=1&mtid=h72oaYH
GE5naptQP1b7HyAY, 접속일자: 2025.12.28.

ABSTRACT

The Inclusion and Significance of Allen's Tales
in *The Korean Repository*

Seo, Hye-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pects and significance of the tales recorded by Horace N. Allen in *The Korean Repository*.

The tales Allen contributed to this publication are divided into legends and folktales, totaling eighteen pieces. Having arrived in Korea in 1884, Allen built close relationships with King Gojong and the family of Empress Myeongseong. This allowed him to document his experiences in the political space of Seoul and recognize the national character and cultural excellence of Korea, which ultimately led to his recording of these tales in *The Korean Repository*.

The tales he collected are categorized into legends and folktales. The legends focus on the famous sites and treasures of Seoul, including stories surrounding Gyeongbok Palace and Gyeonghee Palaces, the origins of place names such as Boeundan-dong and Acha-gogae, accounts of the establishment of Jeongneung and Gwanwangmyo, the history of the Wongak Temple Pagoda, and the casting of the Bosingak Bell.

The folktales serve as tributes to the potential of the Korean people, categorized into stories of the benevolent rule and civil administration of King Taejo and King Yeongjo, the problem-solving prowess of Korean scholars, and tales of the wisdom, bravery, and prophecies of the common people.

The tales recorded by Allen reflect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discourses of late 19th-century Korea, express the altruism and morality of the Korean people, and confirm a Westerner's empathy toward Korean tales.

Key Words Allen, *Korean Repository*, Seoul, 19th century, ethnicity, westerners

논문투고일: 2025.12.31.

심사완료일: 2026.02.03.

게재확정일: 2026.02.05.